하나님 계심 믿음과 소금에 절인 물고기

(히11:23~31)

23.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24.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 받기를 거절하고
25.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26.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27.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28.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29.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 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30. 믿음으로 칠 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31.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 계심 믿음과 소금에 절인 물고기>라는 제목의 하나님말씀 증거 합니다.

하나님 계심을 믿는 것, 이게 바로 히브리서 저자가 말하고 있는 믿음의 가장 명료하고 간단한 정의입니다.
하나님 계심을 믿음, 근데 그것이 소금에 절인 물고기와 무슨 상관관계가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대중매체에 소개되고 있는 사진을 통해서 쐐기문자라고 하는 것을 접해보신 줄로 압니다.
그야말로 쐐기모양을 수없이 조합을 바꿔가면서 이루어진 문자, 이게 바로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주역들이었던 기원전 3천년에 수메르인들이 사용하던 문자입니다.

그런데 이 문자의 특성이, 한글이나 영어의 로마자는 표음문자인데, 이것은 한자처럼 표의문자입니다, 뜻을 따라 표현한 문자로 그걸 상형문자라고도 얘기하지요.
그러니까 사물의 형상을 그대로 옮겨놓은 거예요.
이러한 수메르인들의 문자 중에서 소금에 절인 물고기의 모양을 그대로 옮겨놓은 문자가 있다고 합니다.
물고기를 소금에 절일 때 어떻게 절였느냐, 우리도 그렇게 절여요.
생선을 가져오면 내장을 다 빼낸 다음에 등 쪽으로 칼을 대서 끊어내지 않고 등 쪽은 붙어있는 채로 배 쪽을 갈라서 딱 펼쳐놓습니다.
그러면 대칭적인 모양으로 물고기가 딱 벌어집니다, 그렇게 해놓고 소금을 거기다 뿌리지요.

이렇게 소금에 절여놓은 물고기가 양쪽으로 갈라져서 짝을 이루듯이 펼쳐져 있는 모습을 그대로 옮겨놓은 단어가 바로 '상대한다'라는 뜻의 단어입니다.
마주보면서 말도 하고 의논하는 것을 상대한다고 말합니다, 또 싸움하는 것도 상대하는 거죠.
'상대한다'라고 하는 단어가 그러한 형상을 본떠서 만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금에 절인 물고기의 모양을 따서 만든 상대한다는 이 단어가 성경의 히브리어로 차용돼서 나타난 게 '네게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네게드'라는 단어가 쓰인 곳이 창세기 2장 18절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신 뒤에 '아담이 독처하는 것이 보기 좋지 않으니 돕는 배필을 내가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예수님과 성령님과 함께 의논하시고 결정하시지 않습니까?
이때 돕는 배필, 그 배필이라고 하는 말이 '네게드'인데 이 단어가 수메르어로부터 차용되어진 단어라 이겁니다, 거기서부터 파생된 단어라는 거예요.
즉, 짝, 상대자, 이게 바로 절인 물고기를 벌려놓은 모습을 딴 글자로부터 나온 단어라는 이야깁니다.

이 단어의 생겨진 유래를 통해서 우리가 참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내와 남편이 함께 삽니다, 평생을 서로 상대해야 됩니다.
평생을 서로 상대한다는 것은 마음을 서로 주고받는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이것이 절인 물고기를 벌려놓은 양쪽 편이다 이거예요.
양쪽으로 갈라져 있지만 한쪽은 붙어있습니다.
이게 바로 상대자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상대하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상대자가 누구냐 하면, 절인 물고기의 내가 한쪽이고 그가 다른 한쪽이라는 얘깁니다.
상대자가 좋은 관계에서 상대하는 사람일수도 있고, 사건도 상대할 수가 있지요, 좋은 분위기

에서 좋은 관계에서 상대하는 존재들이 있는 반면에, 나쁜 관계에서 상대하는 존재들이 있지요, 원수라든지 라이벌, 여당과 야당.
근데 이게 다 좋은 관계로 상대하든 나쁜 관계로 상대하든 소금에 절인 물고기와 같이 결국은 이들이 하나로 엉켜있고 하나로 붙어있다 이런 뜻입니다.
이 상대한다는 말 속에 그렇게 깊은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가끔 UFC 같은 걸 보시면 서로 죽일 듯이 달라붙어서 원수로 싸우잖아요, 그런데 그 싸우는 긴 시간 동안 서로 내내 꽁꽁 붙어있고 엉켜있습니다.
하나가 돼서 몸부림치는 겁니다.
씨름도 마찬가지로 서로 붙잡고 끌어당기고 난리가 납니다.
원수고 라이벌인데 끌어당겨서 하나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히브리서 저자가 믿음을 하나님 계심을 믿는 거라고 정의하지 않았습니까?
상 주심을 믿는 것은 하나님 계심을 믿음에 부차적으로 따라오는 것입니다.
우선은 하나님 계심을 믿어야 믿음이 성립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계심을 믿는다는 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주변에 우리가 마음을 주면서 상대해야 될 존재가 굉장히 여러 가지 있어요.
그런데 그 많은 여러 가지가 다 보이는 것이고 만져지는 것이고 들리는 것들이라서, 강력하게 우리 마음에 자기 자신들을 상대자로 제시하고 유혹하고 끌어당기고 있습니다.
근데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면서 하늘을 올라타시고 우리 앞에 와계십니다, 보이는 것들과 마찬가지로 우리 앞에 와계십니다.
그러므로 이 보이고 들리고 만져지는 모든 것들을 무시해버리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게로 마음을 드리면서 하나님과 상대하는 것이 믿음이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계심을 믿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입으로는 '하나님이 계신 걸 난 믿어!' 해놓고, 내 마음은 앞에 있는 경쟁자와 어떻게 싸워서 이길 것인가에 온 신경이 다 가있을 경우에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고 하나님이 계심을 믿는 게 아닌 게 돼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심을 믿는다는 게 어렵다고 우리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의미에서, 소금에 절인 물고기의 모양에서 상대한다는 뜻이 나왔다는 이 점을 염두에 두고 예를 들었던 얘기를 다시 해보면 이런 겁니다.
자, 풍랑 만난 배 위에서 제자들의 태도를 보면 풍랑을 상대해서 풍랑에 마음을 줘버렸어요.
이건 무슨 얘기냐 하면 풍랑과 부부관계를 맺었다는 얘기에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풍랑 같은 여자나 남자와 결혼을 했다고 하면, 단 하루인들 평안하고 기분 좋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난리가 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풍랑에 마음을 주고 상대한다는 것은 소금에 절인 고기처럼 양쪽으로 갈라져 있는 한쪽 편이 된다는 얘깁니다.
내가 마음을 주고 상대한다는 게 부부가 된다는 얘기에요.
자, 골리앗이 있습니다.
사울 왕이 골리앗에게 마음을 주고 골리앗을 상대합니다.
그러니 골리앗 같은 남편을 맞아들여서 결혼한 것과 같은 의미라는 거예요.
골리앗이 누구에요? 최종목적이 사울 왕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에게 마음을 주면서 상대하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골리앗을 자기 아내 자기 남편으로 맞아들여서 부부관계를 맺은 것과 똑같은 거라는 얘기에요.
나를 죽이려고 하는 힘이 세고 그악스러운 골리앗과 한 부부가 되어서 한집에 사니, 어떻게 편할 수가 있겠습니까, 날마다 무서워서 떨어야 되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 아닙니까?

돈에 마음을 주었습니다, 그러니 돈이 내 아내가 되고 남편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놈의 돈이라는 게 언제나 벌리면 좋을 텐데, 벌렸다 안 벌렸다 난리가 나고, 또 벌게 돼서 쓰고 싶은 것 쓰다보면, 쓰는 것 때문에 일이 생겨버립니다.
그러니까 편할 수가 없는 거죠.
자식을 상대합니다, 자식이 남편이 된 거예요.
근데 자식이라는 게 내 마음대로 됩니까?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자식을 상대하면서 자식을 아내처럼 끌어안고 하나가 돼서 소금에 절인 물고기처럼 한쪽씩이 돼서 붙어서 살고 있으니, 마음이 편할 날이 없는 겁니다.
풍랑이 얼마나 강렬합니까? '나를 상대해라, 나를 상대해라!' 그러는 것 같잖아요, 그렇죠?
'나에게 마음을 주고 나를 상대해라' 풍랑 계심을 믿으라 이거예요.
골리앗 계심을 믿으라 이겁니다, 내가 너희를 죽일 거니까 나의 존재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믿고 벌벌 떨었던 거죠.

반면에, 풍랑이 이는 배 속에서 예수님처럼 풍랑을 상대하지 않고 하나님을 상대합니다.
하나님을 상대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소금에 절인 물고기가 펼쳐졌을 때처럼 한 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한 짝이 되신 예수님에게 풍랑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누군데?

지구의 몇 배 크기의 태양을 지으시고,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돌고 있고 달이 돌고 우주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풍랑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다윗이 골리앗을 상대하지 않아요, 마음이 하나님을 상대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마음을 주니까 하나님과 부부처럼 짝이 됐어요, 소금에 절여진 물고기가 벌려진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과 한 짝이 됐는데 골리앗이 대체 누구란 말입니까?
그러니까 돌멩이 들고 나가는 거예요, 돌멩이 들고.
사울 왕과 이스라엘 전 군대가 벌벌 떨고 있는데, 왜? 골리앗을 상대하다보니까.
근데 다윗은 하나님과 상대하고 하나님과 한 짝이 된 뒤에 골리앗을 딱 보니까, 요건 조약돌이면 되겠어요.
다른 것 필요 없습니다, 조약돌 하나면 되겠거든요? 그래서 조약돌로 끝내버린 겁니다.
예의상 다섯 개를 주웠지, 하나 쓰고 말았어요, 나머지 네 개는 쓰지도 않았습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고, 하나님의 계심을 믿는다는 말이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상대함으로써 하나님과 내가 소금에 절인 물고기가 펼쳐졌을 때, 한쪽과 다른 한쪽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한 짝이 돼서 붙어있는 상태를 말한다는 겁니다.

자, 이러한 의미가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고, 이런 믿음을 갖게 되었고 이런 믿음으로 산 선조들의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은, 자꾸 그리스도 얘기가 나옵니다, 오늘도 모세 얘기를 하는데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분명히 알아야 돼요, 여러분.
성경을 바라보고 있는 히브리서 저자, 아니면 사도바울, 요한, 결국 다들 성령에 의해서 감동받아 이 글들을 쓰고 있는 거 아닙니까?
성령의 감동을 통해 우리에게 깨달아지는 건 뭐냐 하면, 구약에서 예수님 사건이 있기 전에 모든 신앙의 선배들은 예수님 사건을 바라보는 방향으로 예수님 사건을 통해서 완성되어질 신앙의 원리를 따라 살았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된 신앙의 원리가 뭡니까?
이 세상에 대해서 죽는 겁니다.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만 사는 겁니다.
무슨 뜻입니까?
내 주변에 보이는 것들 만져지고 들리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죽는다는 건, 그것들에 대해서 마음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고, 상대하지 않는다는 얘기에요.
그것들의 계심을 믿지 않는다는 얘깁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마음을 드린다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만이 계시는 분인 것을 믿는

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하나님만을 상대한다는 얘깁니다.

그게 바로 주님의 십자가의 원리 아닙니까?
그 십자가 사건이 일어날 시점을 향해 가면서 그 원리를 받아서 살았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역사겠지요.
그들은 일어날 십자가를 바라보고 가고 있고, 우리는 일어난 십자가를 되돌아보고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았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받았다는 게 뭐죠? 그리스도를 따라간다는 얘기에요.
그리스도를 따라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됐습니까?
바로 왕궁의 모든 부귀영화를 상대하지 않게 됐다는 거예요.
바로 왕궁의 부귀영화에 대해서 죽어버렸고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이 살았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리가 그대로 적용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리가 적용되면 나는 하나님만 상대하게 되고, 하나님만 상대하는 게 하나님의 계심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의 계심을 믿어서 상대하게 될 때 하나님과 한 짝이 됩니다.
그럴 때 행동들이 기기묘묘하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 하나님과 짝이 되지 않은 사람들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는 행동들을 하면서 살았다 이겁니다.

그 예를 드는데,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가 태어날 때 히브리인들이 하도 많아지니까 노예들이 숫자가 너무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바로 왕과 귀족들이 두려워해가지고 인구증가를 억제시키기 위해 태어나는 남자아이들을 다 나일 강에 빠뜨려 죽이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누가? 바로가.
그런데 모세를 낳은 모세의 부모님이 이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모세, 그때는 모세라는 이름도 없었어요, 그 아기에 대한 모성애나 부성애 때문에 죽이지 못해서 석 달 동안 숨겼던 게 아니라는 얘기에요.
믿음으로 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이 뭐라고 했지요? 하나님을 상대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생사여탈권을 갖고 명령을 내린 왕을 상대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상대했다, 이게 바로 믿음을 따라서 라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감히 생각지도 못할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애굽 전역에서 히브리인들의 모든 가정에서 태어난 신생아 남자아이들이 다 나일 강에 빠져 죽고 있는 상황인데, 대체 무슨 배짱으로 석 달 동안 아이를 숨깁니까, 걸리기만 하면 가족이 멸절을 당하는 거죠.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상식 밖의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아기라는 게 석 달 동안 숨긴다는 게 쉬운 일이겠어요? 막 울어댈 텐데.
하나님을 상대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 무시무시한 왕을 상대하지 않고 하나님을 상대해서 하나님과 한 짝이 되니까.

그래서 오늘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라고 합니다, 애기가 애기지 아름다우면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외모를 보고 그랬다는 게 아닙니다.
'아름다움을 보고'라는 이 얘기는 지금 스테반의 설교 때에도 나오고 출애굽기로 돌아가서 봐도 그 얘기가 나오는데, 아름답다는 얘기는 이들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통해서 이루실 많은 일들이 있음을, 그 일이 구체적으로 뭔지는 모르더라도 부모님들에게 느끼게 했다는 얘깁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느끼게 했다는 얘기에요, 하나님과 한 짝이 되어서.
그게 바로 '믿음으로'라는 얘기죠.
그리고 '모세가 장성해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모세의 경우도 '믿음으로 모세는…'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바로 왕의 공주의 아들입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히브리인 노예의 레위 지파 한 사람의 가정의 아기가 모든 남자아이를 나일 강에 빠뜨려 죽이고 있는 그 상황에서 태어나가지고 석 달 동안 살 수 있는 확률, 석 달 동안 살다가 바구니에 담겨 나일 강에 던져졌을 때 바로 왕의 공주에게 발견될 확률, 그리고 바로 왕의 손자로 왕자로서 왕궁에서 살 확률이 몇 %나 될 것 같습니까?
제로지요, 제로.
그런데 그 제로가 하나님과 짝이 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100%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짝만 되면, 내 생애가 100% 확률로만 이루어져 나가는데,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확률 제로인 사건들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이렇게 왕자로 자랐어요.

그런데 어렸을 때 누가 키웁니까?
이것도 또 확률 제로의 사건이에요, 왕궁에 들어가서 모세의 어머니가 젖을 먹이면서 키웠습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인의 사상을 넣어준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조상들이 믿었던 그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해준 겁니다.
그러므로 모세가 왕궁에서부터 믿음이 있었다는 얘기에요.
벌써 노예들과 자기를 동질 의식을 가졌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노예가 같은 민족이라서 민족에 대한 사랑 때문에? 아니에요, 믿음을 따라서.
믿음 때문에, 믿음으로.
믿음이 뭡니까?
왕궁의 부귀영화를 상대하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히브리민족을 상대한 것도 아닙니다.
히브리민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상대해갖고 하나님과 짝이 됐다는 얘깁니다.
하나님과 짝이 되니까 히브리민족을 동질한 사람들의 그룹으로 인정하고 그들을 돕겠다는 마음을 갖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여리고성을 돌았다는 얘기가 나와요.
여리고성을 돌 때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상대하지 않습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야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으로 진격해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한 관문인데, 이거 못 무너뜨리면 후미를 놔두고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후미가 잘려버리니까.
이렇게 여리고성을 무찔러야 되는데 여리고성을 상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상대하니까 하나님과 한 짝이 돼서 짝이 되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끌려가는데, 여리고성을 한 바퀴씩 칠 일 동안 돌고, 마지막 날에는 일곱 바퀴 돌고 나팔을 불었습니다.
이게 사람이 하는 짓입니까?
무슨 짓 하는 거예요, 지금?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려면 싸울 일을 준비해야지.

똑같은 거예요, 사업하는 사람이 사업이 잘될 수 있는 일을 해야지, 무슨 짓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살고 있으면서 해야 될 인생의 모든 비즈니스들, 그 비즈니스가 잘되는 프로젝트가 성공할 수 있도록 애를 써야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냐?
하나님과 짝이 된 사람들에게서 바로 이런 짓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확률 제로의 일인데 확률 100%의 일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남들이 볼 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일인데 확률이 100%인 일들만 하게 된다는 겁니다.
아~ 묘하잖아요?

모세의 어머니가 바로의 왕궁에서 모세를 젖먹이면서 키우게 될 것이, 히브리 노예의 한 여자가, 이게 가능합니까?
근데 하나님과 짝이 됐을 때 이 불가능한 일이 100% 가능한 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자, 기생 라합이 정탐꾼들을 숨겨줬어요.
그러니까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상대한 것도 아니고, 조국과 민족을 상대한 것도 아니에요.
누구를 상대합니까?
하나님을 상대했어요.
기생이니까 오고가는 나그네들을 통해 많은 얘기를 들어요.
나그네들이 얘기하기를 '지금 애굽에서 출발한 어떤 민족이 있는데, 그 민족이 여호와하나님이라는 신을 믿고 있는 민족으로, 지금 파죽지세로 모든 적들을 물리치면서 이쪽으로 진입해 들어왔다'라는 얘기를 들은 겁니다.
이때 라합의 마음속에 믿음이 생긴 거예요.
이 하나님에 대해서 상대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계심을 믿는 거예요.
근데 같은 여리고 사람들은 똑같은 얘기를 들어도 아무도 하나님의 계심을 믿은 사람이 없고,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을 상대자로 삼은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기생 라합이 하나님을 상대자로 삼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짝이 돼버렸어요.
하나님과 짝이 된 상태에서 이스라엘민족의 정탐꾼들을 살려줬습니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된지 아세요?
이것도 또 확률 제로의 일이 일어난 거예요.
다윗 왕, 아브라함과 다윗과 예수, 이렇게 넘어가잖습니까?
그 다윗 왕의 증조모가 룻이고, 그 고조할머니가 라합이에요.
아!~ 이게 기가 막힙니다, 아니 어떻게 여리고성에서 이방인으로서 살던 창녀 출신의 라합이 예수님의 조상이라고 사람들이 일컫는 아브라함과 다윗 중에 다윗 왕의 고조할머니가 될 확률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과 짝이 되잖아요, 이 세상에서 보이는, 조국에 대해서도 적군에 대해서도 상대하지 않는 거예요, 보이는 어떤 것과도 상대하지 않고 하나님에게만 마음을 주고 하나님만 상대함으로써 하나님의 계심을 믿었습니다.
확률 제로의 상태가 확률 100%의 상태로 인생길을 열어가는 겁니다.
하나님과 짝이 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유대인 출신으로서 그리스도인들이 된 사람들이여, 지금 뭘 주저하느냐?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에서 이 세상의 보이는 것들에 대해 마음을 주지 말고 하나님께만 마음을 주는데, 하나님께만 상대하고 하나님께만 마음을 주고 하나님과 짝이 되는 이 일이 십자가를 통해서만 된다는 것을 알고 잔소리하지 말고 십자가만 굳건히 붙잡으라는 얘기를 지금 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계심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상대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상대하려면 마음을 드려야 됩니다.
마음을 드리면서 상대한다는 것은 소금에 절인 물고기를 벌려놓은 것처럼 한 짝이 된다는 얘기고, 하나님과 한 짝이 되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서 기대를 한 번 해보시지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하나님 계심을 믿음으로 소금에 절인 고기에서처럼 하나님과 한 짝이 되어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는 삶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